

# 중국인 학습자의 겹받침 발음 오류 분석: 겹받침 앞·뒤 자음 선택의 오류를 중심으로

박시균 · 최경복\*  
(군산대학교)

**Park, See-Gyoon & Choe, Kyeong Bok. (2014). A Study on the Pronunciation Errors of Korean Double-final Consonants by Chinese Learn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 22(4), 317-33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rror types of Chinese learners' mispronunciation of the Korean double-final consonants through the writing and speaking experiments. The outcome of the writing experiment showed that the error rate of the beginners group was 64%, the intermediate group 58% and the advanced group 51%. On the other hand, in the speaking experiment, the error rate of the beginners group was 47%, the intermediate group 52% and the advanced group 29%. Both in the writing and speaking experiments, high rate of errors mainly came out with the words for which the latter one between the two of the double-final consonants was pronounced. That is because Chinese learners tend to pronounce only the former consonant when they pronounce words of double-final consonants. It would greatly help them learn correct double-final consonants system and final consonants pronunciation that the teachers of the Korean language understand the error types of Chinese learners in double-final consonants pronunciation and give them systematic and continuous education of double-final consonants pronunciation.

**주제어(Key Words):** 중국어 학습자(Chinese learners), 발음오류(pronunciation error), 한국어 겹받침(Korean double-final consonants), 발음교육(pronunciation education)

## 1. 서론

본고는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성 발음 중

---

\* 교신저자: 박시균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겹받침<sup>1)</sup> 발음의 오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겹받침 발음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전체 한국어 학습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인 유학생은 2011년 현재 전체 유학생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것이 발음 교육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형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발음의 오류 중의 하나가 종성 발음의 오류이다. 한국어와 중국어<sup>3)</sup>의 음절구조의 차이로 중국어에는 /n/, /ng/[ŋ] 이외에는 한국어와 같은 종성이 없다. 그리고 한국어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자음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인식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인 학습자의 종성 발음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종성의 발음 오류 중에서도 겹받침의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발음의 오류이다. 겹받침의 오류는 한국인 화자들도 자주 오류를 보인다(김남희, 2011:45). 모국어 화자인 한국인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인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두 개의 받침 중에서 어떤 것을 발음해야 할지 선택하여 발음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중국인 화자들은 두 개의 받침 중에서 뒤 자음을 발음해야 할 때에도 앞 자음을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두 개의 받침을 다 발음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해버리는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겹받침 발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중국인 학습자들의 겹받침 발음 오류 유형을 살펴보고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겹받침 발음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발음의 측면에서는 ‘음절말 자음군’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더 타당하나 겹받침이라는 용어를 쓰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뒤에 발음이라는 용어를 붙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겹받침이라는 용어를 택했다.

2) 2011. 12. 31.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구성 현황(총 유학생:88,468명) \*2014년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통계자료.

국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미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기타
분포	73.8%	5.6%	3.5%	2.4%	1.1%	0.9%	0.8%	11.9%

3) 언어학적으로 한족이 쓰는 ‘한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중국어’라는 용어를 중국의 한족들이 사용하는 ‘한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겹받침 발음 연구의 이론적 배경<sup>4)</sup>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나라지만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 화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인 중국어의 간섭으로 발음의 오류를 보이게 된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 때문에 중국어 화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종성과 더 나아가 겹받침 발음에서 많은 오류를 보인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최소의 발화단위를 음절이라고 한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특징뿐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 2.1.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성과 종성의 자리에는 자음이 오고, 중성의 자리에는 모음만이 올 수 있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 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sup>5)</sup>

한국어 음절구조	발음 유형
모음(V)	아, 이, 어, 오, 요
자음 + 모음(CV)	가, 다, 자, 바, 쇼
모음 + 자음(VC)	악, 엄, 얼, 울, 엄
자음 + 모음 + 자음(CVC)	물, 성, 꿈, 직, 걸

모음은 홀로 쓰여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자음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모음과 결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한국어는 음절을 이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한국어의 초성에는 /ㅇ/을 제외한 18개의 자음(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중 하나만 올 수 있다. 중성에는 모든 단순모음과 이중모음이 올 수 있다. 종성에는 ‘ㄷ, ㅃ, ㅍ’을 제외한 16개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이는 다시 7개의 자음으로 중화되어 발음된다. 표기상 ‘ㄴ, ㄹ, ㄹ, ㄹ’처럼 ‘자음+모음+자음+자음(CVCC)’의 구조가 가능한 것처럼

4) 2장이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독자도 있겠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독자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넣기로 하였다.

5) 한국어에는 반모음 [j]와 [w]가 있다. 이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음절의 유형을 나누면 V에 반모음(S: Semi Vowel)이 앞에 오는 SV형(야, 여, 와, 위), CSV형(효, 교, 과, 늬), SVC형(약, 용, 얼, 운), CSVC형(걸, 향, 판, 쉼) 등이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반모음과 단순모음이 결합되면 이를 이중모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 유형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표 1>에서와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만 설정했다.

보이지만 이는 철자상의 표기일 뿐 실제 발음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발음되어야 한다.

## 2.2. 중국어의 음절 구조

중국어가 한국어와 음절구조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聲母)와 운모(韻母)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이다.<sup>6)</sup> 중국어의 음절구조에서 선택적 요소인 첫 자음을 성모라고 하고 나머지를 운모라고 한다. 중국어 음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음이 한 개 이상 필요하고 최대 세 개까지 올 수 있다. 이 세 개의 모음은 다시 운두, 운복, 운미로 나뉜다.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비해 다양하다. 중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

음절구조	예	음절유형
V	一(i), 餓(e)	운모
VV	也(ie), 鴨(ia)	운모+운모
VVV	有(iou), 要(iao)	운모+운모+운모
CV	大(da), 他(ta)	성모+운모
CVV	歲(sui), 最(zui)	성모+운모+운모
CVVV	叫(jiao), 跳(tiao)	성모+운모+운모+운모
VN	安(an), 陰(in)	운모+후행비음 <sup>7)</sup>
VVN	眼(ian), 完(uan)	운모+운모+후행비음
CVN	新(xin), 進(jin)	성모+운모+후행비음
CVVN	年(nian), 床(chuang)	성모+운모+운모+후행비음

## 2.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비교

첫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성모와 운모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중국어는 어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이 /n/과 /ng/(=[ŋ])밖에 없지만 이 또한 모음과 결합된 하나의 모음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중국어에는 종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 종성 발음을 어려워하고 많은 오류를 범한다.

6) 중국어의 음절체계는 ‘성모, 운모, 성조’로 나뉘지만 본고에서는 초분절음인 성조를 제외하고 논한다.

7) 중국어에서는 후행비음도 운모의 일부분으로 본다.

둘째, 한국어의 종성에서 받침이 중화(음절말 평폐쇄음화)되어 발음되고 겹받침에서 하나의 자음만을 발음한다. 중화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성의 자음을 초성의 음가로 발음하려 하게 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겹받침에서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키고 하나의 자음만을 발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자음을 다 발음하거나 앞 자음만을 발음하는 오류를 자주 보이므로 겹받침에서 어떤 자음이 발음되고 어떤 자음이 탈락되는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중국어는 한국어에 비해 음절 경계가 뚜렷하다. 연음현상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월요일[워요일]’을 [월요일]로 읽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비교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겹받침을 발음할 때에는 폐쇄음인 종성의 정확한 음가를 이해해야 하고, 종성의 중화현상을 이해해야 하며, 겹받침의 발음을 할 때 두 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는 탈락시키고 하나만 발음해야 하는 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많은 오류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겹받침의 두 개의 자음 중에서 하나를 탈락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앞 자음을 발음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뒤 자음을 발음하는 겹받침 단어들에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 겹받침 발음의 오류 실험 및 분석

#### 3.1.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의 연구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은 겹받침 발음을 할 때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는 발음과 실제 발음, 단어를 들을 때 인지하는 발음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겹받침 발음쓰기 실험과 겹받침 말하기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였다<sup>8)</sup>. 연구의 범위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종성 발음 중에서 겹받침 발음으로 한정하였다.

##### 3.1.1. 피실험자

이 연구의 피실험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로서 전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전북 소재 대학의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른 겹받침 오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중·고급 각각 10명씩 총 30명을 실험에 참여

8) 청취 실험의 경우, 한국인이 겹받침을 발음할 때 단자음으로 발음하므로 이것을 들려주는 청취실험을 통해서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겹받침 중 어느 것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하는가 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청취실험을 통해서서는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의 실험에서는 청취 실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켰다(<표 3> 참조). 피실험자 단계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었는데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초급, 한국어 학습 6개월 이내의 학습자.

중급, 토픽 중급을 획득하였거나 한국어 학습 기간이 6개월 이상 4년 미만인 학습자.

고급, 토픽 고급을 획득하였고 한국어 학습기간이 4년 이상인 학습자.

<표 3> 피실험자 상세 사항

	순	NO	성별	출생	출신지	소속	한국어 학습기간	토픽	소속 대학
초 급	1	초급1	남	1992	산서	어학원	5개월	-	군산대
	2	초급2	남	1990	산동	어학원	5개월	-	〃
	3	초급3	남	1992	서안	어학원	5개월	-	〃
	4	초급4	남	1989	서안	어학원	5개월	-	〃
	5	초급5	남	1992	산동	어학원	5개월	-	〃
	6	초급6	여	1994	대만	대학1	4개월	-	비전대
	7	초급7	여	1994	하북	어학원	5개월	-	원광대
	8	초급8	여	1989	사천	어학원	4개월	2급	〃
	9	초급9	여	1992	감숙	어학원	5개월	-	〃
	10	초급10	여	1990	산동	대학3	5개월	-	〃
중 급	1	중급1	여	1986	중경	대학원	13개월	-	전북대
	2	중급2	여	1993	온주	대학1	12개월	3급	비전대
	3	중급3	여	1994	온주	대학1	12개월	3급	〃
	4	중급4	여	1994	온주	대학1	12개월	4급	〃
	5	중급5	남	1985	대만	대학2	2년	3급	〃
	6	중급6	여	1990	하북	대학2	3년	4급	전북대
	7	중급7	여	1988	하남	대학4	3년	4급	〃
	8	중급8	여	1989	하북	대학3	3년	3급	원광대
	9	중급9	여	1990	하북	대학2	2년	4급	군산대
	10	중급10	여	1985	산동	대학원	4년	4급	군산대
고 급	1	고급1	여	1990	사천	대학4	4년	6급	원광대
	2	고급2	여	1989	사천	대학4	4년	6급	〃
	3	고급3	여	1989	사천	대학4	4년	5급	〃
	4	고급4	남	1989	사천	대학4	4년	5급	〃
	5	고급5	여	1990	사천	대학4	4년	5급	전북대
	6	고급6	남	1990	사천	대학4	4년	5급	〃
	7	고급7	여	1989	사천	대학4	4년	5급	〃
	8	고급8	여	1989	사천	대학4	4년	5급	〃
	9	고급9	여	1990	사천	대학4	4년	5급	〃
	10	고급10	여	1988	산동	대학원	5년	6급	군산대

### 3.1.2. 실험단어

연구의 범위는 중성 발음 중에서 겹받침으로 한정하였다. 겹받침 조사 대상 낱말은 총 35개로 표준발음법에 있는 겹받침 단어와 서울대 교재 1,2권에 있는 겹받침 단어에서<sup>9)</sup> 선정하였다(<표 4> 참조). 실험지에 이들을 배열할 때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표 4> 겹받침 실험 단어

겹받침	실험에 사용된 단어	어휘수(35개)
ㄱㅅ	넋, 낫이, 몫	3
ㄴㅅ	앉다, 앉히다, 었다	3
ㄴㅎ	많다, 많아서, 괜찮다	3
ㄹㅅ	넓다, 넓둥글다, 밟다, 밟지, 밟히다, 짧은	6
ㄹㅊ	외곬	1
ㄹㅌ	활다, 활아서	2
ㄹㅍ	을다, 읊어	2
ㄹㅎ	끓다, 끓는, 싫어하다	3
ㄹㅍ	닭다, 닭은, 째다	3
ㄹㅇ	밖고, 닭, 닭고기, 닭에게, 읽다, 읽은	6
ㅅㅅ	값, 값이, 었다	3

### 3.1.3. 실험방법

중국인 학습자들의 겹받침 발음 실험은 모두 2가지 형태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피실험자들이 겹받침 단어들의 발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피실험자들이 35개의 겹받침 단어의 발음을 설문지에 적게 하였다.

두 번째는 피실험자들의 실제 겹받침 발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앞의 발음 쓰기 실험과 동일한 35개의 겹받침 낱말들을 2초의 간격을 두고 3회 읽는 방법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sup>10)</sup>.

9) 서울대 교재 1급에 수록된 겹받침 단어 : 많다, 많이, 싫어하다, 앉다, 앉습니다. 었다, 여덟, 읽다, 읽습니다. 읽으십니까, 재미없다.

서울대 교재 2급에 수록된 겹받침 단어 : 괜찮다, 끓다, 끓다, 넓다, 닭다, 밟다, 별일이 없다. 싫다, 잃어버리다, 째다, 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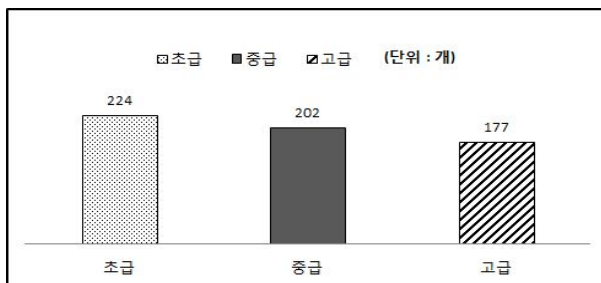
10) 피실험자 음성 녹음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Quick Record 앱을 이용하였으며 wav 고음질 파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 3.2. 겹받침 발음 쓰기 오류 분석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겹받침 발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표 4>의 35개 겹받침 단어의 발음을 설문지에 적게 하였다.

#### 3.2.1. 겹받침 발음 쓰기 초·중·고급 비교 분석<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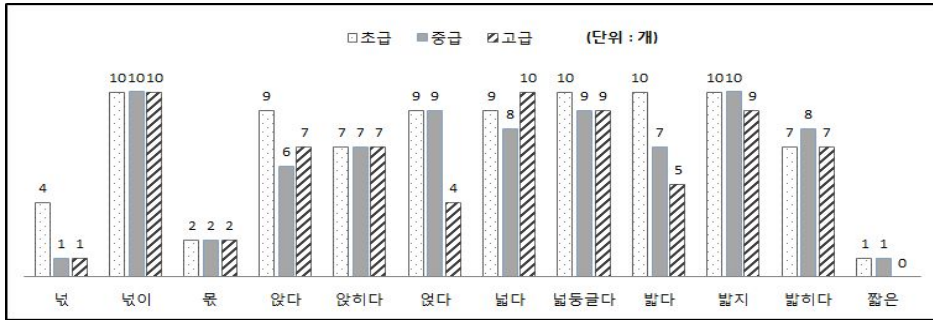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각 군별 겹받침 발음 쓰기의 오류빈도는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고급으로 갈수록 어휘 능력이 높아져 초급에 비해 많은 어휘를 접해보았고 또한 많은 단어를 발음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겹받침 발음 쓰기의 오류는 겹받침의 선택 오류와 더불어 음운 현상을 정확하게 적지 못하여 생긴 오류도 많았다. 발음 쓰기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밭자’를 ‘밭지’로, ‘넓둥글다’를 ‘널둥글다, 넓둥글다’ 등으로, ‘을다’를 ‘을다, 읊다’ 등으로, ‘닭고기’를 ‘달고기, 달꼬기’로, ‘젊다’를 ‘절다, 절따’ 등으로 발음을 표기하였다. 체언 단독으로 쓰인 단어와 연음되는 단어의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높고, 연음 상황을 제외한 ‘래’, ‘러’, ‘래’, ‘래’ 계열의 겹받침 단어에서 오류 빈도가 높았다(<그림 2> ~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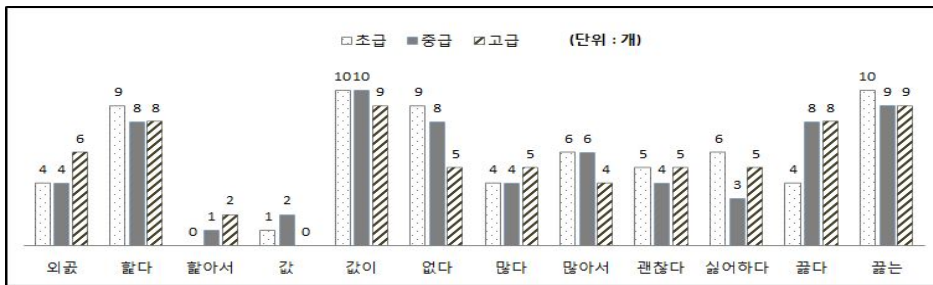
<그림 1> 겹받침 발음 쓰기 오류 빈도

- 11) 쓰기, 말하기 실험결과는 엑셀 200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SPSS 21.0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12) 발음 쓰기 실험은 피실험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개별 겹받침 단어의 ‘심리적 발음 실재체’를 알아본다는 면에서는 가치 있는 시도이나 발음 표기는 기존의 철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표준 철자법과의 혼동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험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이 높아질수록 오류 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적어도 머릿속의 ‘발음 실재체’ 면에서는 ‘표준 발음법’이 제시하는 올바른 발음 쪽으로 서서히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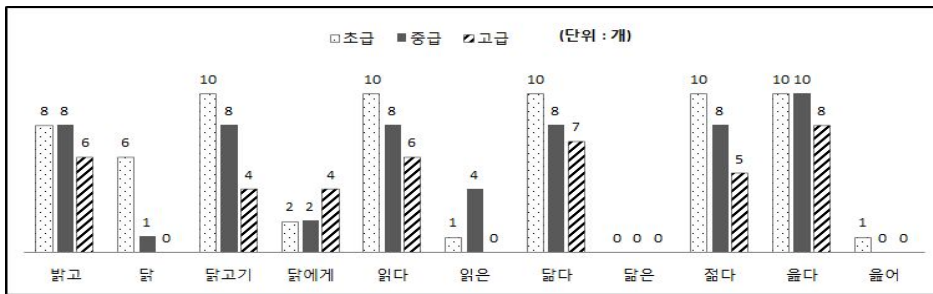




〈그림 2〉 ‘ㄱ, ㄴ, ㄹ’ 쓰기 오류



〈그림 3〉 ‘ㄹ, ㄹᄇ, ㅂ, ㄴᄇ, ㄹᄇ’ 쓰기 오류



〈그림 4〉 ‘ㄹ, ㄹᄇ, ㅂ’ 쓰기 오류

일원배치 분산분석<sup>13)</sup>을 통해 각 군<sup>14)</sup>간 겹받침 쓰기의 오류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검정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0.102로 0.05보다

13) 일반적으로 독립된 세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 간에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처리 방법이다.

14) ‘각 군’이란 초급군, 중급군, 고급군을 말한다.

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쓰기 오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날 정도로 각 군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각 군별 쓰기 일원배치 분산 분석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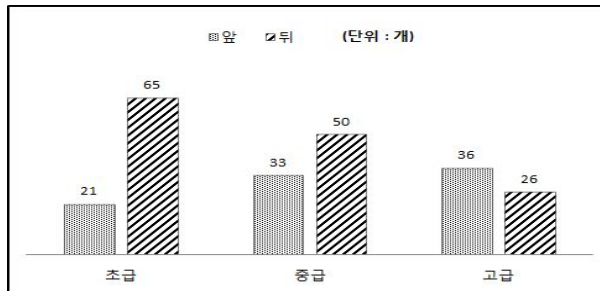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값	유의확률
집단-간	110.600	2	55.300	2.488	.102
집단-내	600.100	27	22.226		
합계	710.700	29			

### 3.2.2. 겹받침 선택의 오류

본 장에서 말하는 겹받침 선택의 오류란 받음 오류의 원인이 두 개의 자음 중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여 오류를 보인 것을 말한다. 다른 음운 현상으로 인한 오류를 제외하고 받침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한 오류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겹받침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연음상황의 단어들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단어 중에서 앞 자음이 받음되는 겹받침 단어는 총 16개, 뒤 자음이 받음되는 단어는 9개다.

<그림 5>를 보면 초급군에서 앞 자음을 받음하는 단어와 뒤 자음을 받음하는 단어의 오류는 21개, 65개, 중급군에서는 33개, 50개, 고급군은 36개, 26개다. 이를 다시 오류율로 확인하면 초급군은 13%, 72%이고, 중급군은 21%, 56%, 고급군은 23%, 29%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초급군의 경우 뒤 자음을 받음하는 단어의 오류율이 앞 자음을 받음하는 단어의 오류율보다 59%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급군의 경우, 겹받침을 받음할 때 앞 자음을 받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고급군의 경우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고급으로 갈수록 겹받침 받음 시 자음 선택의 오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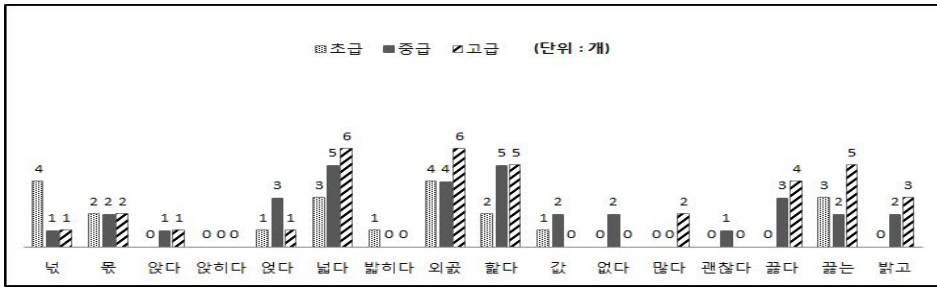


〈그림 5〉 겹받침 선택 오류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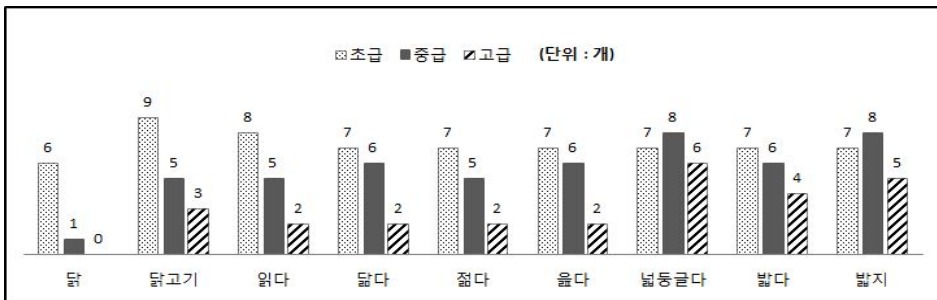
단어별 오류상황을 살펴보면 <그림 6> ~ <그림 7>과 같다. 서론에서 예측하였듯이 중

국인 학습자들은 뒤 자음을 발음하는 ‘래, 리, 레, 례’ 계열의 단어에서 많은 오류를 보였다. 특히 초급의 경우는 앞 자음을 발음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여 오류의 차가 컸다. 이 결과를 통해 겹받침 발음 교육을 할 때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 대한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각 군 간의 겹받침 쓰기의 앞뒤 자음 선택 오류율<sup>15)</sup>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검정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군 간 앞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의 오류율은 유의 확률이 0.388로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각 군 간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의 오류율은 유의 확률이 0.04로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ukey를 이용한 사후분석에서 초급군과 고급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고급은 초급에 비해 뒤 자음 오류율에서 현격한 개선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앞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별 겹받침 오류 빈도



〈그림 7〉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별 겹받침 오류 빈도

15) 앞 자음을 선택해 발음하는 단어와 뒤 자음을 선택해 발음하는 단어의 수에 차이가 있어 오류율로 비교하였다.

〈표 6〉 쓰기 앞·뒤 자음 선택 오류율 일원배치 분산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값	유의 확률	Tukey (사후분석)
앞자음 오류율	집단-간	.049	2	.025	.981	.388	
	집단-내	.677	27	.025			
	합계	.727	29				
뒤자음 오류율	집단-간	.956	2	.478	6.834	.004	초급:중급 (.350)
	집단-내	1.888	27	.070			초급:고급*(.003)
	합계	2.843	29				중급:고급 (.080)

+: Tukey : ( ) 안은 유의 확률, \* = 유의미함

### 3.3. 겹받침 말하기 오류 분석

겹받침 말하기 실험은 피실험자들의 실제 겹받침 발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앞의 발음 쓰기 실험과 동일한 35개의 겹받침 낱말들을 2초의 간격을 두고 3회 읽는 방법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sup>16)</sup> 녹음 후 분석을 위해서 진행한 청취판단은 저자 2인이 진행하였으며 두 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발음은 실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음성 전문가인 제 3자에게 들려주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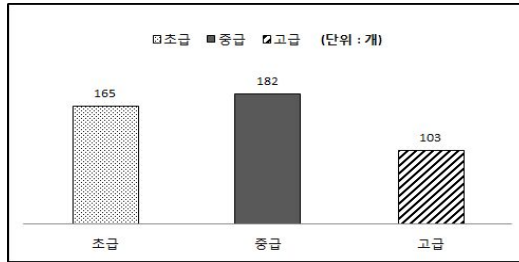
#### 3.3.1. 겹받침 말하기 초·중·고급 비교 분석

겹받침 말하기의 각 군별 비교는 <그림 8>과 같다. 각 군별 말하기 오류빈도는 초급 165개, 중급 182개, 고급 103개로 고급이 초급, 중급보다 훨씬 낮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고급으로 갈수록 발음이 자연스러워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급군의 경우는 초급보다 오류빈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어학원에서 발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초급군에 비해 중급에서의 발음 교육이 부족하기도 하고 초급에서 배웠던 발음을 잊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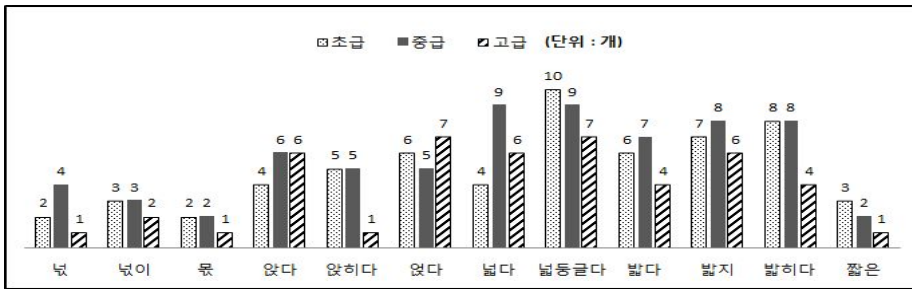
체언 단독으로 쓰인 단어에서 낮은 오류율을 보였고, ‘넙둥글다, 밟다, 밟지, 핥다, 끓는, 닭고기, 닭다, 읊다’ 등 뒤 자음이 발음되는 겹받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그림 9> ~ <그림 11> 참조).

16) 피실험자 음성 녹음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Quick Record 어플을 이용하였으며 wav 고음질 파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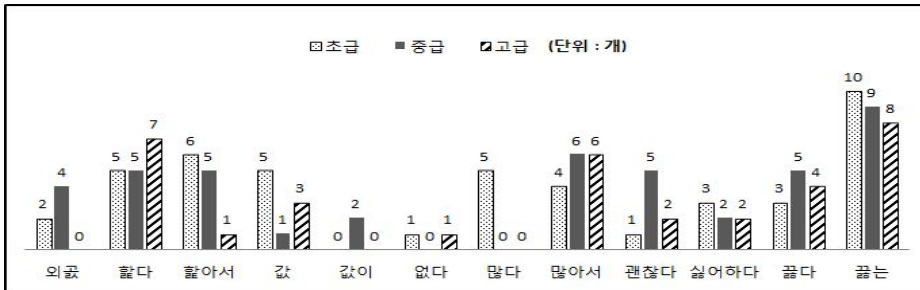
17) 이는 초급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왔던 쓰기 실험의 결과와 다르다. 머릿속 ‘음성 실재체’에서는 향상이 있었으나 실제 발음에서는 실제 수업에서의 발음연습 부족 등의 이유로 퇴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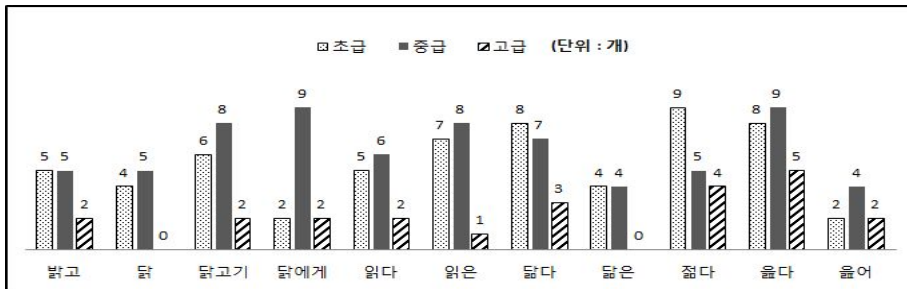
〈그림 8〉 말하기 오류 빈도



〈그림 9〉 'ㄷ, ㅌ, ㄹ' 말하기 오류



〈그림 10〉 'ㄹ, ㄹ, ㅂ, ㅂ, ㄹ' 말하기 오류



〈그림 11〉 'ㄹ, ㄹ, ㅂ' 말하기 오류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각 구간 말하기 오류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검정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0.001로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ukey를 이용한 사후분석에서 초급과 고급, 중급과 고급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급에서 오류가 초, 중급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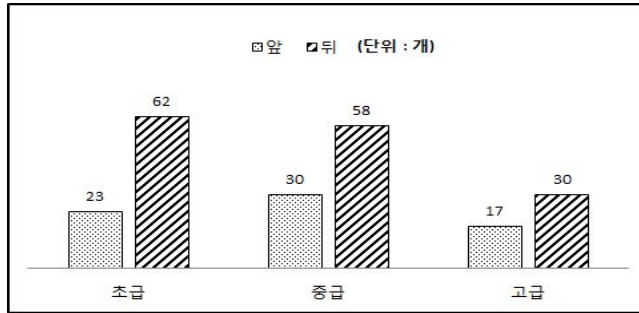
〈표 7〉 각 구간 말하기 일원배치 분산 분석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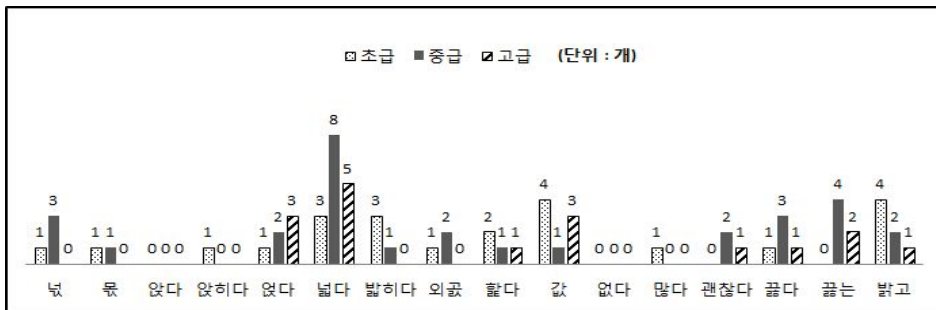
	계급합	자유도	평균계급	F 값	유의확률	Tukey (사후분석)
집단-간	345.800	2	172.900	8.906	.001	초급:중급 (.668)
집단-내	524.200	27	19.415			초급:고급* (.011)
합계	870.000	29				중급:고급* (.001)

### 3.3.2. 겹받침 선택의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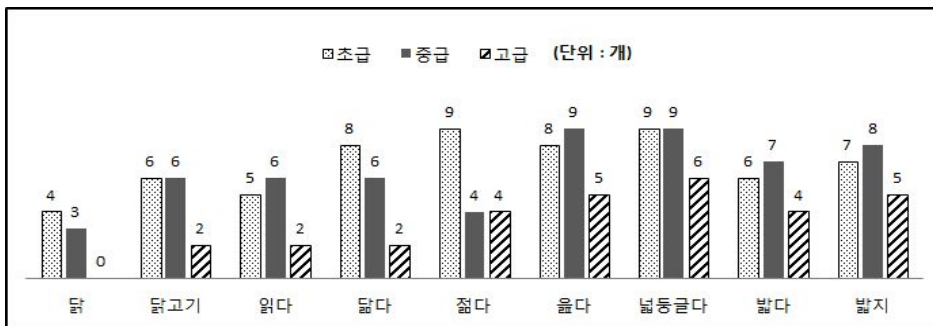
겹받침 오류란 발음 오류의 원인이 두 개의 겹받침 중에서 다른 것을 발음하여 오류를 보인 것을 말한다. 다른 음운 현상으로 인한 오류를 제외하고 받침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한 오류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쓰기와 마찬가지로 겹받침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연음 현상이 발생하는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앞 자음이 발음되는 겹받침 단어는 16개, 뒤 자음이 발음되는 단어는 9개다. 겹받침의 선택으로 인한 오류는 초급군의 겹받침 선택 오류가 85개, 중급군의 겹받침 선택 오류는 88개, 고급군의 겹받침 오류는 47개로 초급과 중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급으로 갈수록 겹받침 선택으로 인한 말하기 오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자음과 뒤 자음의 오류를 살펴보면 초급군에서 앞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와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의 오류는 23개, 62개, 중급군에서는 30개, 58개, 고급군은 17개, 30개다. 이를 다시 오류율로 확인하면 초급군은 14%, 69%이고, 중급군은 19%, 64%, 고급군은 11%, 33%로 나타났다(<그림 12>). 초급군의 경우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의 오류율이 55%나 높게 나타났다. 중급군은 45%, 고급군은 22%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 각 군별 겹받침 선택 오류 빈도



〈그림 13〉 앞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별 선택 오류 빈도



〈그림 14〉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별 선택 오류 빈도

이는 중국인들이 겹받침 중 앞 자음이 발음될 것을 예상하고 앞 자음을 발음하는 경향이 강한데 뒤 자음을 발음해야 하는 경우는 이것이 오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며 고급으로 갈수록 잘못된 발음을 수정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 〈그림 14〉 참조).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겹받

침 발음 교육을 할 때, 뒤 자음이 발음되는 ‘래, 리, 래, 려’ 계열의 단어에 집중하여 교육하여야 하고 예외 상황의 단어들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서 교육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각 군간 겹받침 말하기의 앞뒤 자음 선택 오류율(18)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검정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각 군간 앞 자음의 오류율은 유의 확률이 0.241로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각 군간 뒤 자음의 오류율은 유의미한 차이( $p=.007<.05$ )를 보였다. Tukey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한 결과 초급과 고급, 중급과 고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초급, 중급에서는 뒤 자음의 오류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고급이 되면서 뒤 자음의 오류율이 현격히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말하기 앞·뒤 자음 선택 오류율 일원배치 분산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값	유의 확률	Tukey (사후분석)
앞자음 오류율	집단-간	.033	2	.017	1.500	.241	
	집단-내	.298	27	.011			
	합계	.331	29				
뒤자음 오류율	집단-간	.751	2	.375	6.071	.007	초급:중급 (.916)
	집단-내	1.669	27	.062			초급:고급* (.010)
	합계	2.420	29				중급:고급* (.025)

#### 4. 겹받침 발음의 오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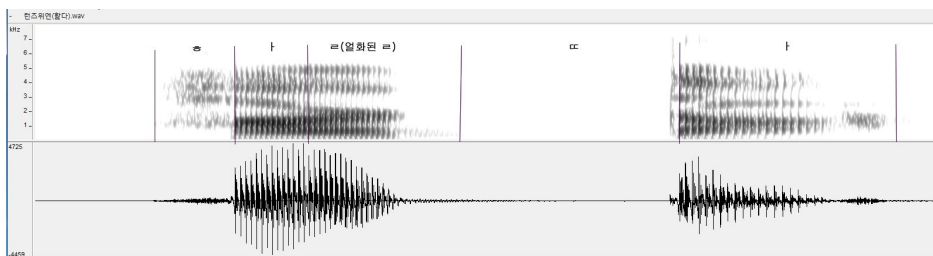
지금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겹받침 실험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오류를 분석하여 보았다. 중국인 화자들의 겹받침 오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겹받침 발음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다. 본고에서 확인한 겹받침 발음의 오류 원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겹받침 발음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에서 오는 종성의 인지 및 발음에 대한 부정확성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의 발음에서 오는 영향이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중국어에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종성의 /n/과 /ng/ 밖에 없어서 한국어의 종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발음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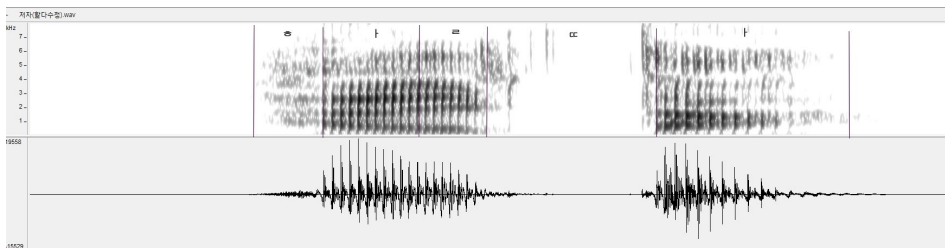
18) 쓰기 분석에서의 마찬가지로 앞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와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의 수가 달라서 오류율로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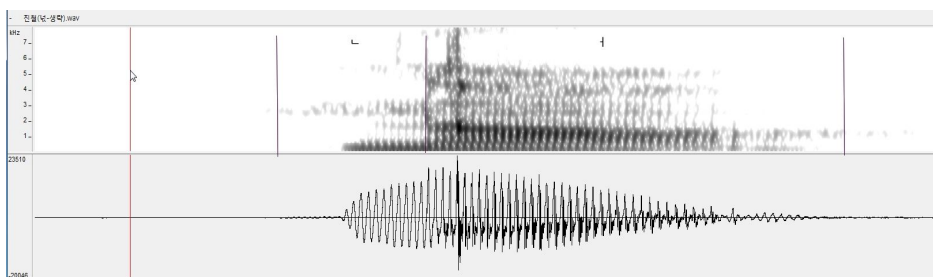
받침 중 앞, 뒤 자음을 잘못 선택해서 발음하는 오류 이외에 평음, 경음, 격음의 구분을 못해서 생긴 오류 ‘닭[딸]’, 생략의 오류 ‘짧은[짜븐]’, ‘넋[너]’(<그림 17> ~ <그림 18> 참조), 자음의 대치 오류 ‘넋[력]’, ‘얼화’로 인한 오류 ‘할다[하알따]’(<그림 15> ~ <그림 16> 참조) 등 중국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긴 발음의 오류는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한국인 화자에게는 어색하게 들린다.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발음의 오류는 쉽게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학습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5> 초급 학습자의 종성 ‘르’ 발음 오류의 예 (할다[하알따])<sup>19), 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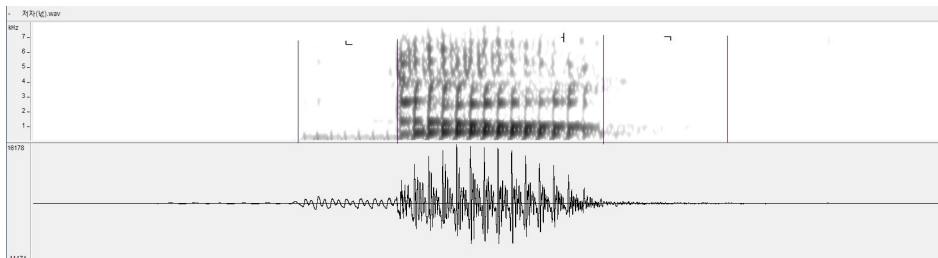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인 화자의 정상적인 ‘르’ 발음



<그림 17> 중국 학습자의 종성 생략(넋→[너])의 예<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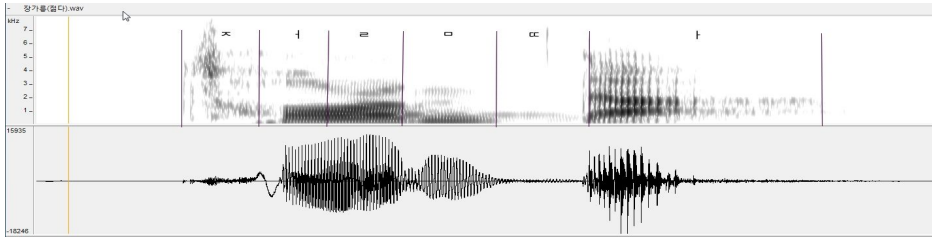
- 19) 중국어 얼화(兒話)의 영향으로 종성 ‘르’를 길고 어색하게 발음하는 중국어 학습자들이 많다.
- 20)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오류에서 ‘르(얼화된 르)’ 발음이 한국인의 정상적인 ‘르’ 발음에 비해 길게 발음되고 있다(<그림 15>,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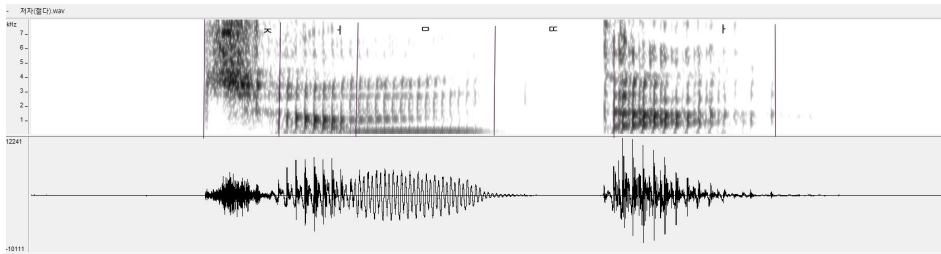
〈그림 18〉 한국인 화자의 정상적인 ‘뉘’ 발음

둘째, 겹받침 단어의 발음오류는 겹받침 발음의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종성 발음, 그 중에서도 겹받침 발음을 어려워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연음되어 하나의 자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져 발음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겹받침은 두 개의 자음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발음되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되게 된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리’, ‘래’, ‘래’은 뒤 자음이 발음되고, 나머지는 앞 자음이 발음된다. 여기에 ‘리’, ‘래’은 예외 조항이 있어 어떤 단어는 앞 자음이 발음되고 어떤 단어는 뒤 자음이 발음된다. 단어를 읽을 때 이런 규칙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규칙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자주 오류를 보이는 부분이다(박시균, 2011:18-19). 본고의 실험에서도 사용된 ‘뉘다’와 ‘뉘지’의 단어는 한국 고등학생들도 40%, 44.5%의 오류를 보였다(김남희, 2011:45). 또 겹받침을 모두 발음하는 오류(<그림 19> ~ <그림 20> 참조)를 보이기도 한다(뉘다[뉘따/뉘따]). 겹받침 단어의 발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겹받침 단어의 발음 교육을 할 때에 앞 자음과 뒤 자음의 겹받침 선택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급군과 중급군의 경우 쓰기 실험과 말하기 실험에서 모두 뒤 자음을 발음하는 겹받침 단어에서 오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겹받침 교육을 할 때 뒤 자음을 발음하는 ‘리[뉘[뉘]]’, ‘래[뉘[뉘]]’, ‘래[뉘다[뉘따]]’, ‘래[뉘다[뉘따]]’ 계열의 단어와 예외 상황 ‘뉘고[뉘꼬]’, ‘뉘다[뉘따]’와 같은 단어의 발음은 특히 유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21) 중국 학습자의 ‘뉘’ 오류에서는 모음 ‘어’가 한국인 화자의 정상적인 발음에 비해 길게 이어지고 받침이 형성되지 않는 반면 한국인 화자의 정상적인 발음에서는 모음 ‘어’가 짧게 발음되고 이어 ‘ㄱ’ 받침이 발음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초급 학습자의 겹받침을 다 발음한 오류의 예. (쩡다→[쩡따])<sup>22)</sup>



〈그림 20〉 한국인 화자의 정상적인 ‘쩡다’ 발음

셋째, 음운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한국어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되어 다양한 음운변동이 생긴다. 겹받침 발음 쓰기 실험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경음화, 유기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음에 오류를 많이 보였다.

넷째, 한국어 교육을 막 시작한 초급의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발음 교육이 부족하다. 말하기 실험에서 중급군과 고급군에서도 많은 발음의 오류를 확인하였다. 일부 단어들은 초급군보다 더 많은 발음 오류가 있었는데 이는 발음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 발음의 오류가 화석화(fossilization)되거나 퇴행(regression)된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국내 유학생의 70% 이상이 중국 유학생이고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편중이 심한 편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중국인의 발음 오류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급과 고급 과정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후로는 한국어 발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발음 향상이 어느 선에서 멈추거나 퇴행을 보이기도 하므로 정확한 발음을 갖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2) 중국인 학습자의 ‘쩡다’ 발음 오류에서는 겹받침 ㄹ과 ㅌ가 모두 발음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 화자의 발음에서는 받침의 발음에서 ‘ㅌ’만이 정확하게 발음이 되고 있다(<그림 19>, <그림 20>).

## 5. 결론

본고는 최근 한국 유학생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인 종성과 그 중에서도 겹받침 발음의 오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쓰기, 말하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오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겹받침 교육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간섭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 비교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와는 다른 한국어의 초·중·종성 체계로 인해 종성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와 자료들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겹받침을 발음할 때 두 개의 자음 중에서 앞 자음을 발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뒤 자음이 발음되는 겹받침을 발음할 때 더 많은 오류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겹받침 오류분석에 반영하였다.

3절에서는 겹받침 발음의 오류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는데, 35개의 실험 단어를 대상으로 각각 10명씩의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 피실험 집단에게 발음쓰기, 말하기의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겹받침 발음 쓰기 실험에서는 초급군은 오류율이 64%, 중급군은 58%, 고급군은 51%의 오류를 보였다. 겹받침 앞뒤 자음 선택의 오류에서 앞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의 오류와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의 오류율은 초급군이 13%, 72%, 중급군이 21%, 56%, 고급군이 23%, 29%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겹받침을 발음할 때 앞 자음을 우선적으로 발음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 높은 오류가 나왔다.

의사소통능력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기 실험이 본고의 실험 중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하기 실험에서는 초급군은 오류율이 47%, 중급군은 52%, 고급군은 29%의 오류를 보였다. 초급군과 중급군의 오류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중급군의 경우 발음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발음이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급군은 전체 오류율이 낮고 앞 자음과 뒤 자음을 발음하는 겹받침 발음의 각각의 오류에서도 초급이나 중급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말하기 실험 중 겹받침 앞뒤 자음 선택의 오류에서는 앞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의 오류와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에서의 오류율이 초급군은 14%, 69%, 중급군은 19%, 64%, 고급군이 11%, 33%로 쓰기와 마찬가지로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들의 오류율이 높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겹받침 발음 교육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뒤 자음을 발음하는 단어의 교육에 더 집중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4절에서는 3절의 겹받침 실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화자들의 겹받침 오류의

원인을 정리해보았다. 겹받침 발음 오류의 원인은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에서 오는 종성의 인지 및 발음에 대한 부정확성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중국어의 발음에서 오는 영향이다. 둘째, 겹받침 단어의 발음오류는 겹받침 발음의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다. 겹받침 발음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뒤 자음을 발음하는 겹받침 단어를 앞 자음을 발음하려는 오류를 보이기도 하고 두 발음을 다 발음해버리기도 한다. 셋째, 음운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넷째, 한국어 교육을 막 시작한 초급의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발음 교육이 부족하다. 말하기 실험에서 중급군과 고급군에서도 많은 발음의 오류를 확인하였다.

발음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말하기 실험의 일부 단어에서 중급군의 오류가 초급군보다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발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겹받침 단어의 발음은 한국인들도 많은 오류를 보일 만큼 혼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발음이 많다.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겹받침 교육은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분야 모두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 외. (2005). *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길동, (2007).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남희, (2011). 겹받침 발음의 사용실태와 교수-학습방안 -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운. (200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선미, (1991). 겹받침 줄이기. *언어연구*, 4, 47-56.
- 김형배, (2007). 현행 한국어 어문규정의 문제점-국어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2, 31-58.
- 박덕유 외. (2011).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음운교육 연구*. 서울: 박문사.
- 박시균, (2011). 한국어 용언 어간 말 자음군의 발음 연구: 서울경기 지역과 충남지역 출신의 20대 화자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6(4), 791-816.
- 박시균. (2013). *한국음성음운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시균·오종철·최은하, (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와 중국어 유사발음 비교 분석 및 발음 지도 연구(폐쇄음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8, 355-383.
- 범류, (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ㄹ' 발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경화. (2007). *한국어 교육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엄의상. (2012). *중국어 음운론과 응용*. 서울: 한국문화사.
- 우창현. (2003). 국어교육에서 확인되는 겹받침 오류-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어문학*, 81, 103-124.
- 정용수. (1983). 우리말 겹받침 발음의 실태와 그 문제점. *국어교육*, 44, 277-286.
- 장향실. (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 211-228.
- 정재설. (2008). 국어 겹받침 표준발음의 오류에 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철주. (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문연구*, 18, 33-65.
- 조창규. (1996). 국어의 표준 발음법과 그 교육. *원광대대학원논문집*, 17, 41-64.
- 허용·김선정.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서울: 박이정.

#### 박시균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63)469-4334

이메일: seegyoon@kunsan.ac.kr

#### 최경복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국제교육교류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전화: (063)220-3152

이메일: diberia153@hanmail.net

Received on October 10,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5, 2014

Accepted on December 5, 2014